

뉴라이트 이념·정율성 공원 공방... “대통령 탄핵” 언급까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설훈 “독립운동가 흉 장군 폄하하고 친일 반민족 백선엽 장군 치켜세워”

권성동 “자유민주주의 질서 위협 대북인도지원사업 검증 수단 없어”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의 압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부터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면 탄핵 소지가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여당 의원들의 고함 이 터져 나왔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가 서로 정반대 편에 서서 치고 받는 익숙한 광경이 재현됐다. 특히,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갈린 것은 흥법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정율성 기념공원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논란 등 이념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독립운동가인 흥 장군을 깎아내리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던 고(故) 백선엽 장군은 치켜세운다고 힐난했다. 설 의원은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된 뒤 제일 먼저 한 일이 백 장군의 국립묘지 기록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문구를 삭제한 것을 지

적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백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그걸 파내고 육군사관학교 누리집에 관련 웹툰을 올리고 찬양하고 나섰”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백 장군이 6·25 때 북한에 남침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수십 개의 훈장을 받으시고 대내외적으로 평가 받으신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되받았다.

설 의원은 이를 “극우 뉴라이트 본색”이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고 했다. 뉴라이트 편향된 이념이 대한민국의 이념이 돼야 하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정율성 기념공원 추진 논란, 문재인 정부의 김원봉 선생 띄우기,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 참여 등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수령한 시민단체 등의 사업을 북한 체제의 불투명성 때문에 검증할 수단이 없다며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법과 원칙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대북인도지원사업은 북한에 올바른 변화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솔직히 말해서, 남쪽의 친북세력, 북쪽의 권력

자,中间的의 브로커가 대한민국의 세금을 훔쳐 간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고 평했다.

실소 섞인 야유가 나온 순간도 있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흥법도 장군의 흉상 철거 논란과 윤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의 참석차 출국한 것을 연결지었다. 김 의원은 아세안 회원국인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인 것과 국부이자 공산당원인 호찌민 베트남 전 국가주석의 묘소에 윤 대통령이 헌화한 것을 지적하며 “베트남은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다. 이념의 잣대로 보면, 공산주의 국가에 투자를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베트남 국부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 가져다 놓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고 여야의 양측을 향한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이재명 대표 단식 6일째... 대여투쟁 효과 논란

“지지층 결집·국정쇄신 원동력” vs “尹정부 향한 적절한 대응 아냐”

〈친명계〉

〈비명계〉

단식천막에 원외 인사·일반인 방문 유튜브 채널, 생중계로 홍보 나서 이상민 의원, SNS에 단식중단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째 곡기를 끊고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 윤석열 정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우려와, 단식이 길어지면 지지층이 결집해 정기국회에서의 대정부·대여투쟁에 힘이 실린 것이라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했고 9월 5일 단식 6일차를 맞았다.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당 소속 의원들은 조를 짜서 국회 앞에 설치된 이 대표의 단식천막에 교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단식이 길어질수록 원외 인사들도 천막을 찾았다. 단식 2일차엔 나소열 보령



단식농성 6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김태년·전해철 의원과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서천 지역위원장,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 등이, 3일차엔 황명선 전 논산시장, 김상근 목사, 이부영·안재웅·신희범·장임원·박석무·임현영·이우재 당 상임고문들이 이 대표를 찾았다.

4일차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이 대표를 찾아 격려했고 5일차엔 이해찬 당 상임고문,

김관영 전북지사, 함세웅 신부, 군의회에서 제명된 여현정 양평군의원 등이 천막을 찾았다. 이날 단식 6일차엔 박남춘 전 인천시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이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표의 단식 천막엔 현역 정치인, 시민사회 원로뿐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와 일반인들

도 찾고 있다.

민주당은 당 유튜브 채널 ‘텔리민주’를 통해 이를 생중계하면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오전, 오후 생중계 뒤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를 열면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의 천막을 찾는 사람들은 단식이 오염수 방류 저지·이념 공세 대응·국정 쇄신의 원동력되는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당 대표를 지낸 이해찬 상임고문도 4일 이 대표에게 “국회·정부·법원·헌재의 균형이 헌법의 기본 질서인데, 그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전반에 대해 “파시즘으로 가는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정기국회에서 당을 이끌어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지적도 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면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폭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지만, 그렇다고 윤 대통령의 폭주와 독단을 제어하는데 단식이 별로 유효적절하지도 않은 것 같다”면서 “그럴수록 민심을 얻고 스마트하게 유능한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다. 그래서 정치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대표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면서 ▲민주주의 훼손을 멈추고 민심과 소통할 것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할 것 ▲국정의 전면적 쇄신과 개각을 단행할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전무해 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의 단식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대통령실, 김만배 인터뷰에 “희대의 대선공작 사건”

“가짜뉴스,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

대통령실이 지난 대선 당시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인터뷰 의혹’을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가짜뉴스의 악습을 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성명을 통해 “가짜뉴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대장동 주범과 언론노(언론노

조연맹)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마치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였던 것처럼 조작하고, 대선을 사흘 앞두고 녹취록을 풀어 대선 결과와 바꾸려 한 것”이라며 “날조된 사실, 공작의 목표는 윤 후보의 낙선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정치공작과 가짜뉴스는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요인”이라며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조작 인터뷰를 4개 아이템에 할애해 보도한 방송사 등 집중적으로 가짜뉴스를 실어 나른 언론 매체들이 있었다”며 “기획된 정치공작의 대형 스피커 역할이 결과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위관계자는 “(브로커인) 조모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보도를 위해서는 충분한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치고,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할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는 게 기자들이 아는 언론의 정도이자 상식”이라고 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尹 대통령 부부,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아세안·G20 열리는 인니·인도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5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2시경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 부부를 배웅하기 위해 서울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5박 7일 일정으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를 잇달아 방문해 다자간 회의와 양자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 뒤 11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 후 동포 만찬 강담회를 시작으로 8일(현지시간)까지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비롯해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로 향한다. /박정익 기자